

순장영성수련회 '나를 따르라'

3월 2일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리더십 2,210여 명 참석, 신임 다락방장, 순장 임명식

‘2026 순장영성수련회’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3월 2일(월)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공동체 리더십(공동체 담당 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2,210여 명이 참석한다.

2026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성북공동체 특순,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정진호 장로, 오창화 집사 강의, 패널토의, 신임 다락방장·순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어워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체 돌봄과 순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 토의는 정재욱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이기원 목사, 김병순 장로, 정원석 다락방장, 서은영 순장, 고윤상 순장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신임 다락방장·순장 임명식에서는 신임 다락방장 및 순장 478명이 임명장을 받는다. 김진성 다락방장(부천화평공동체), 한윤석 순장(양재온사랑공동체), 나은희 순장(영등포구로공동체)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는다.

온누리 순장어워드에서는 ‘고넬료와 같이 주를 따르는 순장상(외국인 순장)’,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를 따르는 순장상(최고령 순장)’, ‘바울과 같이 주를 따르는 순장상(감동 순장)’, ‘기름부음 순장상(원거리 순장)’, ‘에녹과 같이 주를 따르는 순장상(장기근속 순장)’을 시상한다.

순장영성수련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 당일 교회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차량은 인근 유료 주차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촌역(4번 출구)과 이촌 한강공원 2, 3주차장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오전 7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오후 2시 35분부터 3시 10분까지 운행한다.

문의: 02-3215-3239, 323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영성수련회.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제: 자기 부인의 제자도)

4월 5일까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2월 18일부터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사순절 동안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이어간다.

이번 주(3월2~7일)에는 생태(生態)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는 ‘생태 회복: 소유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이 주제다. 월요일(2일) 텀블러 사용하기, 화요일(3일) 장바구니나 대화용기 사용하기, 수요일(4일) 출퇴근길 혹은 동네 산책 중에 쓰레기 3개 이상 줍기, 목요일(5일) 불필요한 쇼핑 앱 삭제하고 총동 구매 참기, 금요일(6일)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공간 질서 세우기, 토요일(7일) 나눔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 물품 준비하기 등을 실천한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 생태’가 주제다. 월요일(2일)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화요일(3일)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수요일(4일)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목요일(5일) 물건을 사기 전 세 번 고민하기, 금요일(6일) 자기 방 서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기, 토요일(7일) 깨끗한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나눔)하기 등을 실천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시작됐다. 4월 3일(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채널에서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한다. 2주차 주제는 ‘의의 길’이다. 3월 2일(월) ‘그리스도

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마 5:11), ‘기뻐

하고 즐거워하라’(마 5:12), 3일(화) ‘이 땅의 소금’(마 5:13), ‘세상의 빛’(마 5:14~16), 4일(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마 5:17~20), ‘형제와 화해하라’(마 21:~26), 5일(목) ‘간음하지 말라’(마 5:27~28), ‘죄에 단호히 대처하라’(마 5:29~30), 6일(금)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마 5:31~32), ‘맹세하지 말라’(마 5:33~37)를 주제로 이재훈 위임목사가 캠퍼스를 순회하며 해당 캠퍼스 부목사와 함께 설교한다.

/ 박지혜 기자

CGN ‘무명(無名)’ ICVM 크라운 어워즈 금상

‘더 파이널 프로젝트’ 은상, ‘패스트 캠프’ 온라인 콘텐츠 부문 수상

CGN이 제작한 콘텐츠가 연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CGN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지난 2월 18일(현지 시간) 제53회 ICVM 크라운 어워즈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제작비 5만 달러 이상)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CGN AMERICA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파이널 프로젝트(The Final Project)’는 베스트 다큐멘터리(제작비 5만 달러 이하)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ICVM 크라운 어워즈가 열린 NRB의 컨벤션 기간에 ‘NRB 2026 TV Showcase’도 함께 진

행했는데, CGN AMERICA ‘패스트 캠프(Fast Camp)’가 온라인 콘텐츠 부문(Online Content Entertainment Series & Ministry) 수상을 했다.

/ 박지혜 기자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 2026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를 드린다. 3월 14일(토)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일정표 11면>.

제주온누리교회 이취임 감사예배

제주온누리교회 이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2월 8일(일) 오후 6시 제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노규석 목사가 이임하고, 김태웅 목사가 취임했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실장), 배순양 목사(제주온누리교회) 등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제주온누리교회 성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은혜를 경험한 일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위임목사님과 리더십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온누리교회는 2024년 12월 온누리교회

12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601에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강한다. 3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온라인커뮤니티’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마태: 과거로부터의 자유

마태복음 9:9~13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서 ‘킨츠기’(Kintsugi)가 있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옷칠과 금가루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전통 공예 기술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깨어진 곳을 감추는 대신 순금으로 채워 넣어서 이전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들이 순금으로 채워져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고, 멋진 작품이 되는 예술입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깨어진 과거를, 상처 입은 과거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와 허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바 되어 용서받고 변화되면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깨지면 가치 없게 여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순금 같은 은혜로 채우셔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롭게 빛어진 인생이 마태에게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마태가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알패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마태가 알패오의 아들 이라면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지간이 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형제가 세 그룹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로 살던 마태는 깨어진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혼을 팔아먹은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죄인들’이라고 한꺼번에 묶지 않고 세리를 앞에 떼어놓은 것은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형벌 받을 죄인’이라는 의미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발을 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리가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세리들의 죄가 큼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레 요한에게 몇몇 세리가 세레 받으려고 찾아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

문에 세레 요한은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레 요한의 말에 당시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걷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길을 가던 사람을 멈춰 세워서 수색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색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리들은 여행자들이 도저히 낼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낼 돈이 없으면 높은 이자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로마 제국과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가 바로 이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물론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기에 사회적 평판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소속된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편의상 팔레스타인을 두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가 행정관을 파견해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세리는 아니었지만, 헤롯 안티파스 역시 로마의 비호를 받는 지도자였기에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태는 쓰레기 같은,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며 부르셨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깨어짐 위에 은혜의 금가루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세리에 대한 평가를 모르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모르거나 마태의 직업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받는 비난과 조롱을 아셨지만, 세리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모든 비난과 조롱을 함께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당시 민감한 여론을 의식하셨다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또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캔들이 될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요, 어부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다릅니다.

가장 비난받는 죄인의 죄까지 짊어지고, 구원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비난받는 죄인의 죄까지 짊어지고, 구원의 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따른 게 아니라 마태가 이미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통해서 ‘저분은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물음을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여러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베드로의 장모 집에 모여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귀신이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신 일 등이 그것입니다.

세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한 정보를 늘 수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정보 채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분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을 보고는 단지 훌륭한 도덕 선생일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을 배척했기에 이미 포기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은혜, 포용과 관대함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네가 세리의 일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수군거린 것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 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범한 죄를 모르느냐? 너의 모든 부정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책망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티디아’(Mattithiah)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물을 뜻하는 ‘마탄’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소수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죄인 세리가 ‘하나님의 선물’ 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
에게, 마태와 같이 죄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
의 증오와 배제의 표적이 된 이들에게도 하나
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리 중에서 제자를 부르
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보
여주는 부르심입니다.

마태가 연 잔치의 세 가지 의미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
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
다’”(12-13절).

예수님은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
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죄
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
다. 의사의 존재 가치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환자가 없으
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당
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마태
는 도덕적 중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
원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의인이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린 환자
이기에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의인
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
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착각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
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자를 위해 예수님
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들, 다
른 세리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세리 가운데
마태만 부르시고 그하고만 교제하신 게 아니
라 다른 세리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
면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을 먹고 교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
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눅
5:29).

여기서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잔치
를 베푼 것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
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
치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함께 나
누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결혼 잔
치와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린 결
혼 잔치와 같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축
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식탁의 교
제는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동일함과 동질감
을 가져다줍니다. 같은 식탁에 함께 나온다는
것,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마태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세
리들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밖에 없
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집회가 나왔습니다. 맞춤전도집회
의 성경적 근거를 마태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같은 그룹, 같은 문화권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집회가 맞
춤전도집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상을 세분화해서 때로는 연령으
로,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같은 문제를 가
진 직업군으로 구별해서 마태의 잔치와 같이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
고 있습니다.

셋째, 마태의 과거 삶에 대한 단절의 의미가
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기점으로 과
거의 수치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끊

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세리의 삶
을 살지 않겠다’는 선포와 알림의 의미도 있
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마태의 새로운 삶의
증인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비난받던 죄인 세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리 출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당시 유
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이
들까지도 만나셨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공동체에 있었던 놀라운 흐름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은 전승을 통해서
만 알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확실하지 않는 기
록이 있어서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
태의 경우는 그가 쓰임 받은 증거가 있습니
다.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교회
역사로 확인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에 등장하기도 하고, 마태가 복음서의 저자
라는 여러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
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시 유대 사
회로부터 출교 당하거나 분리된 유대인 그리
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
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오니
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서는 <마가복음>으로 알려집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서기 역할을 했던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증언에 기초해서 쓰였
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도 정확하게 실제
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록, 때로는 구조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직
접 목격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보

다 훨씬 질서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리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일종의 고백록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원래 사도나 복음
서의 저자가 될 수 없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올려 퍼지고 있
었습니다.

세리로서의 분석력과 치밀함, 특히 수리적
인 분석력이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의 족보입
니다. 꼼꼼한 장부 기록 기술이 예수님의 산
상수훈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데도 도움이 되
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흠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기
둥에 묶여 화형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이후에 부르시
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세관에 있을 때 부
르십니다. 또한 세상에 죄 없는 자를 찾으려
오신 게 아니라 깨어진 영혼을 부르셔서 고치
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마태 이름
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야 합니다.

비난받던 죄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
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처
럼, 우리 역시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
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마태와 같
은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진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것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은혜의 금빛으로 우리를 다시 칠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어 가실 것입
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화 중 누군가 “성경은 모든 죽이는 것(killing)을 범죄하니까, 기독교인은 항상 전쟁에 반대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수 세기 동안 대부분 기독교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전쟁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싸움, 즉 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 사용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평화주의(pacifism)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은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성경과 전쟁에 관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신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말한다. 때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말이다. 몇 장 뒤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선언하셨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게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다. 하나님

은 악을 강제로 억제하도록 인간의 권세를 세우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일부 범죄, 특히 살인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셨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부르셨고, 전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수아의 칼, 삼손의 힘,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신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의로운 죽임의 수단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통치 권세를 세워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게’ 하셨으며, 그 목적을 위해 권세가 칼을 가진다고 썼다. 사실 칼의 용도는 하나뿐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대신 권세를 세워 공격자를 억제하고 처벌하게 하셨고, 필요하다면 전쟁에 나가 시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대응으로 죽임과 전쟁을 정하셨다면, 그것들이 모든 경우에 잘못일 수는 없다.

둘째, 때로 전쟁은 다른 선택지보다 덜 폭력적이다. C.S. 루이스는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강연에서 전쟁을 비난하는 태도의 실제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승리를 허용하거

나 오늘날 이슬람주의 테러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정의가 더 많아지고 폭력이 더 줄어들었을까? 결코 아니다. 그런 악을 더 굳어지게 했을 뿐이다.

C.S. 루이스는 평화주의가 국가 전체에 채택되면 그 나라는 곧 침략당해 평화주의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결론 내렸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그는 악한 사람을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학대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는 비평화주의자가 그들을 지켜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

셋째, 기독교 신학은 전쟁이 정당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고대 사상가들도 어떤 전쟁은 옳고, 어떤 전쟁은 그르다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 전쟁이 정당인지, 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였다. 그의 기준은 ‘정당한 전쟁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의 도덕 명령과 사례에 근거해 폭력을 지속시키는 전쟁과 폭력을 막거나 끝내기 위한 전쟁을 구별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첫째, 자국방위(정당방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외교가 실패한 뒤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셋째, 합법적 통치 권세가 수행해야 하고, 넷째,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투 중에는 첫째, 사용되는 힘이 공격자의 힘에 비례해야 하고, 둘째, 비전투원을 결코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셋째, 목표가 달성되면 공식적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넷째, 피해를 가능한 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주신 칼은 폭정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살인과 정당방어적 죽임을 구별하듯, 국가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전쟁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편’은 없고, 동물처럼 힘을 다투는 경쟁자만 남는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경은 모든 죽이는 것을 범죄하므로 기독교인은 항상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신다.”

“때로 전쟁은 다른 선택지보다 덜 폭력적이다.”

“기독교 신학은 전쟁이 정당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AI 시대

AI 시대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다섯 가지 방향성

김상수 목사
(온누리세계관교회 담임)

지금 세계는 AI 기술에 열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과열 경쟁과 투자는 그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선진국마다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기, 반도체 구매에 여념이 없다. AI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특이점(AGI/범용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정말로 AI 기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판 선악과로 보이는 AI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반대로 비판주의들은 통제 불능의 AI 기술은 언젠가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임을 예견한다. 예컨대 알고리즘의 프로세스 은폐성이나 인간의 사유 능력을 앗아가는 폐해를 대표적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 예찬론자로서 노동의 종말과 공평한 소득분배, 인류의 행복을 배가시킬 거

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비판주의자들조차 AI 기술의 실용성까지 부정할 수 없어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AI 시대 교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조건 AI 기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 윤리에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에 관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고 말씀한 바 있다. 여기서 옛것이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신실한 약속을 의미한다. 새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의 모든 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속 제자들을 향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새로운 과학기술이 부상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는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故 이어령 선

생은 ‘말과 경주하려는 사람’과 ‘말 위에 올라타는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시대는 말 위에 올라타서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해야지, 말(인공지능)과 누가 더 빠르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즉, 내가 AI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술과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지나친 낙관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회의적인 비판주의자로 살아서도 안 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과학기술의 명암을 이해하고, 희망적 낙관주의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눈앞에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기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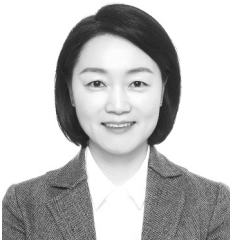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위험한 과학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자 책임인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AI 기술을 우상으로 대체한다면 잘못된 동기와 헛된 욕망처럼 사라져 버릴 공간이 매우 크다. 과거 에덴동산의 실패가 그러했듯이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유포아는 커녕 이웃을 소외시키고, 양극화를 가

져와 테크노크라시의 관료화를 심화시킬 게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과학기술의 유토피아 환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대안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롬 12:1~2). 이런 취지에서 과학기술의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다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성경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체렘/Imago Dei)’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창 1:26). 둘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에 있기에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창 1:28, 마 28:19~20). 셋째, 과학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마 22:37~40). 넷째,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적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앞장서야 한다(약 1:27). 다섯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값비싼 사랑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급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요 1:14). 이 방향성을 믿음의 좌표로 삼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다면 교회는 안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대항해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장보원 팀장
(고양은평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 <소리로 흐르는 음악> 저자)

나는 교회 마당에서 자랐다. 모태 신앙인으로 부모님을 따라 뱃속에서부터 교회라는 공간에 존재했고, 걷고 뛰고 말하며 표현하는 모든 성장 과정을 교회에서 경험했다. 한강대교 근처, 노아의 방주를 본떠 지어진 120년 역사의 교회가 나의 모교회(母教會)다.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밤늦도록 교회 마당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던 시간이다. “준비, 시작!”을 외치며 땀이 나도록 웃고 떠들던 그 마당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었다.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이 함께 자라던 삶의 터전이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나에게 신앙 교육의 장소를 넘어 전인적 성장의 공간이었다.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관계의 기초를 배웠고, 캠프와 수련회, 아웃리치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눈을 키웠다. 청년이 되어서는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의 대소사를 맡으며 책임과 협력의 의미를 배웠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경험은 치열한 사회로 나아가기 전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인생 인턴십이었다.

교회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교회는 오감을 건강하게 깨우는 공간이다. 신앙은 관념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예배는 소리와 움직임, 분위기와 온도를 가진 ‘경험’이다. 찬양과 말씀, 기도의 언어는 아이의 청각을 안정시키고, 반복되는 예배의 리듬은 마음에 질서를

세운다. 단상에 서 있는 교역자와 찬양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회중의 모습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킨다. 교회 식당에서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는 환대의 기억으로 남고, 예배 후 자연스럽게 오가는 악수와 포옹은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축감의 언어가 된다. 이런 감각적 경험은 아이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훗날 신앙을 떠올릴 때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삶의 장면으로 호출된다.

둘째, 교회는 가장 현실적인 관계 교육의 장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양육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관계’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시대 아이들은 또래 외의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교와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만, 관계는 프로

그램으로만 배우기 어렵다. 교회는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동체다. 순예배와 다양한 사역공동체, 차세대 부서 등을 통해 자신보다 어린 존재를 돌보고, 나이 든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신생아 축복기도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과 박수, 청년들의 헌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동과 사랑스러움은 세대 공존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만의 풍경이다. 이런 관계 경험은 아이가 사회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의 기초가 된다.

셋째, 교회는 삶의 무대를 안전하게 연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은 곳이다. 매주 주일 예배부터 작은 발표회, 사역 보고까지 교회는 실패해도 괜찮은 무대를 제공한다. 이 경험은 단순한 발표력 향상을 넘어 자신을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내적 확신을 길러준다. 나 역시 다섯 살 성탄절 무대에서 불렀던 작은 노래부터 교회 역사에 남을 굵직한 행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 앞에 섰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교회에서 수없이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은혜다.

넷째, 교회는 정서를 지탱하는 안전기지(Secure Base)다. 세상은 성취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한다. 잘하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뒤처진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넘어져도 기다려주고, 실수도 다시 기회를 주는 곳이다. 어릴 적부터 교회 어른들에게 들었던 “잘했다”, “괜찮다”라는 말이 내 안에 깊은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이 무조건적인 지지는 인생의 굴곡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확신이다.

오늘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고민한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스펙과 경쟁력을 고민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자랄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교회는 단지 신앙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몸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다. 이 경험은 회복탄력성과 정체성으로 이어져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이를 단단히 붙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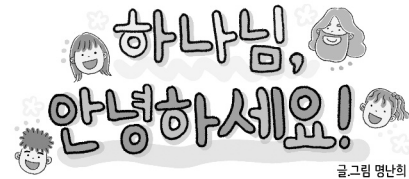
교회 마당은 아이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울타리가 아니다.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출발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신앙을 넘어 삶 전체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5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수: 수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남: 남도 사랑하십니다
일: 일대일 양육은
대: 대대로 이어서 양육해야 한다
일: 일상에서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양: 양육을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육: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이아린 어린이
(더사랑의교회, 초4)



96. 나를 따라라!



성경 QUIZ

〈예수님이 좋아요〉 2월 25~26일 본문
‘마 17:18~20, 마 18:1~5’



1.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 ① 포도씨 ② 수박씨 ③ 겨자씨 ④ 참외씨

2.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여쭙봤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노인 ② 어린아이 ③ 제자 ④ 목사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저는 할머니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성경 내용과 비슷해서 지루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신앙과 기도, 전도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또 책에 나오는 활동들도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과일 샐러드를 할머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딸기,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초코 시리얼, 화이트, 블랙초코알을 넣어서 요거트를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전도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크리스

마스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전도의 왕, 무와이트 무디>를 빌려다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았고, 전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이유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 루아는 6살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2학년이 되면 할머니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로 예약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면서 ‘예수님 3행시’와 ‘일대일 양육

홍수와 방주 그리고 우리

물 심판 기억하며 장차 임할 불 심판 준비를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오늘날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창 7:23).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창 9:18~19).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했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은 오늘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홍수 시대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답은 단 두 가지로 나뉜다. ‘홍수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면 방주에 있었는가?’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었고, 방주는 살리기 위해 설계된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방주는 여러 피난처 중 하나가 아니었다.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다.

그렇다면 방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든 동물이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을까? 노아의 여덟 식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방주 체험관 ‘Ark Encounter’

이 질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 2016년 실물 크기로 건축된 방주 체험관 ‘Ark Encounter(아크 인카운터)’이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창조과학 단체 ‘Answers in Genesis(AIG, 설립자: Ken Ham)’가 건축했다. 디자인은 과거 유니버설 스튜디오 프로덕트에 참여했던 ‘패트릭 마쉬(Patrick Marsh)’가 맡았다.

Ark Encounter는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감동을 준다. 길이 155m, 너비 26m, 높이 15m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로 총면적은 9,300㎡가 넘는다.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내부 역시 굵은 종목을 포함해 대부분 목재로 지어졌다.

이곳은 단순히 방주의 외형만 재현한 공간이 아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 3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층마다 방주와 홍수에 대한 질문들을 성경적, 과학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따라가며 성경의 역사성을 자



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약 1년 동안 생활했다. 성경은 그 기간을 2월 17일부터 다음 해 2월 27일까지로 기록한다. Ark Encounter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노아의 가족이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식생활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관람객들은 내부를 둘러보며 마치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듯한 생생함을 경험한다.

과연 과거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미개했을까? 과거 인류를 미개하게 보는 시각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전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은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을 것이다. 범죄 이후에도 홍수 이전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 살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축적했을 기술과 지식은 절대 작지 않았을 것이다.

Ark Encounter는 이러한 전제를 충분히 반영한다. 코로 숨 쉬는 육지 동물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가능한지 정밀하게 계산했으며,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이 조선공학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지도 설명한다. 목재 이음새의 정교함과 내부 구조의 견고함 역시 건축공학적 지혜를 보여 준다. 관람객들은 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인류학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던 성경적 인류관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방주에서의 가족생활을 현실감 있게 재현했다. 동물들의 특성에 맞춘 공간 배치, 먹이와 수분 공급 방식, 1년여 기간 물 보급 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성경은 모든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알아야 할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토대로 충분히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Ken Ham 역시 “성경에 기초해 가능한 상상력을 동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Ark Encounter의 큰 감동은 무엇보다 방주의 단 하나뿐인 문 앞에 설 때이다.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던 방주, 그 유일한 통로였던 문 안쪽에 희미하게 비치는 십자

가 형상과 문 옆에 적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많은 관람객이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자 긴 줄을 서는 이유도 바로 이 감동 때문일 것이다.

창조박물관(Creation Museum)

Ark Encounter 관람 후에는 AIG의 창조박물관(Creation Museum)을 방문할 수 있다.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창조박물관은 2007년 개관했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Ark Encounter가 세워졌다.

대부분 박물관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진화론적 역사관에 따라 전시를 구성하는 반면, 창조박물관은 〈창세기〉1장에서 출발하는 성경적 역사관을 토대로 전시를 구성한다. 7C’s History(창조, Corruption(타락), Catastrophe(격변적 홍수), Confusion(바벨탑), Christ(그리스도), Cross(십자가), Consumption(완성))이라는 일곱 단계로 인류 역사를 조망한다.

각 단계에서 성경적 관점과 진화론적 관점을 비교 설명한다. 관람객들은 두 세계관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성경의 정확무오성과 복음의 중심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Ark Encounter가 방주에 초점을 맞춘다면, 창조박물관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 관람 이후 창조박물관 방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창조박물관 전시 역시 복음으로 마무리된다. 죄 없이 창조되었다가 죄를 범한 ‘첫 사람 아담’과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며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제시한다(고전 15:45).

Ark Encounter와 창조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첨단 기술과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매년 새로운 전시관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나는 2007년 창조박물관이 개관한 해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10년 뒤 창조박물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적지 않게 놀랐다. 박물관 내부 디자인 대부분 새롭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놀라움을 AIG 창조박물관 담당자에게 전했다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 성경과 예수님 빼고 다 바꾸기로 했다!”

‘방주타GO!’에서 ‘나침반Q’로

지난 1월, CGN에서 방영한 ‘방주타GO!’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감사였다. CGN 제작팀이 미국 켄터키 현지를 직접 방문해 촬영했는데, AIG 스태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진행되었다. 설립자 Ken Ham과의 인터뷰 역시 귀한 시간이었다.

3월 5일에는 ‘방주타GO!’의 연장선상에서 ‘CGN 나침반Q’가 다시 찾아간다. CGN 나침반Q에서는 두 강의가 진행된다. 첫 강의는 ‘방주 밖의 이야기’로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시작된 홍수 심판의 현장을 살펴본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지구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강의는 유일한 구원 도구인 방주 자체를 다룬다. ‘홍수와 방주’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임위하신 심판과 동시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물 심판을 기억하며 장차 임할 불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벧후 3:6~7).



3월 ‘나침반 Q’
일시: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신청: QR코드
문의: 02-3275-9303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부부

“결혼 준비 중인 상대방과 다니는 교회가 다릅니다. 같은 교회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다녀도 괜찮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교회가 더 좋은가’를 따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두 사람이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연약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경우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 목회적 돌봄의 통로가 달라지면서 신앙의 방향이 나뉘거나 영적인 대화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결혼 이후 교회 선택의 핵심은 ‘내 교회’ 혹은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찾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함께 묻는 과정이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붙들 때, 교회 선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함께 기도하며 다음 같은 질문을 나눠보기를 바란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서로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여기는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함께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인가?”

“우리 가정이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는 어디인가?”

함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두 사람이 같은 마음과 방향을 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섬겨 온 교회, 깊이 관계 맺어 온 공동체,

많은 사역이 있다면 떠나는 결정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만큼 교회는 단순한 출석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 역시 평생에 걸친 사랑과 희생의 여정이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은 기존의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당장 한 교회로 모이기 어려울 수 있다. 직장, 거리, 사역의 마무리 등

여러 여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잠시 각자의 교회를 다니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도적으로 영적 일치를 세워가야 한다.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서로가 배운 것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어디에 심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일예배를 따로 드리더라도 신앙의 중심이 둘

로 나뉘지 않도록 의식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결국 하나의 영적 가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교회 선택은 현재의 편의만이 아니라 장차 세워질 가정을 바라보며 결정해야 한다. 훗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부부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있는가? 그분의 응답 앞에 함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부부, 서로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여기는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이다. 교회를 선택하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광 목사
(W청년부)

멘토가 멘티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합니다. 삶의 가치도, 존재 이유도, 미래의 비전도 없이 그저 불투명한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스스로 만든 골방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희망의 불빛이 꺼져 가는 젊은이들이 있다. 삶의 의미도, 존재 이유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속에 서 있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지도 모른다.

“단 한 번뿐이기에 모든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비스와바 쉼보르스카(Wisława Szymborska)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소포클레스(Sophocles)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오늘을 통하여 바꿀 수 있다.” -에드워드 버틀러(Edward Butler)

이 문장들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늘’로 돌려놓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에는 이보다 더 따뜻하고 깊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요 21:12).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 디베라 호숫가에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셨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 실패와 허탈 속에 서 있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며, 굶주린 영혼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분의 식탁은 꾸준

했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날 이후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 육체의 질병 등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을 느낄 때 그곳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다.”

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자리였다. 나 역시 잊을 수 없는 초대의 순간이 있다. 1983년 11월, 대학교 3학년 시절 경기도 광주 변화산 기도원에서 열린 철야집회에 참석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의심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던 때였다. 자정을 넘긴 새벽 무렵, 갑자기 깊은 내면에서 뜨겁고 울컥하는 무언가가 솟구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과 기쁨이 온몸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깊은 평안으로 응답하셨다. 처음 해외 학회에서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던 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도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함께하셨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 간증하던 자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로와 동행을 허락하셨다. 돌아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나와 한결같이 동행하셨다.

예수님은 늘 숯불을 피우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서 함께 가자”는 말씀은 단지 고대의 시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신다. 상처받은 자, 주저앉아 있는 자를 향해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이사가 선지자가 말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사 30:21).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라.

“예수님,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의 음성은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속삭임이다.



조성호 멘토
(갈렐청년부)

교회는 진영이 아니라 기준이다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교회가 서야 할 자리



양웅 장로
(이수공동체, 변호사)

‘변하는 세상(Changing world)에 변하지 않는 말씀(Unchanging Word)을 전하는 것’은故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이 세대를 이어 강조하신 교회의 사명이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꿰뚫는 핵심이

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가 끝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선택해야 했다. 초대 교회는 황제와 예수 사이에서, 종교개혁은 교황과 말씀 사이에서 결단해야 했다. 근대에는 이성·국가·계급·민족이 인간 이해의 기준이 되려 했다. 그때마다 교회는 진영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택할 것인지 물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 전쟁이다. 차별금지과 성평등, 생명 윤리와 낙태, 종교와 표현의 자유, 국가 권한의 확장과 정교분리의 이슈들. 이것들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다. 세계관의 충돌이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이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첨예한 갈등이 입법,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다. 그 흐름에는 서로 닮아 있는 공통의 방향성이 있다. 바로 기독교가 지켜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문제는 특정 법안이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와 기준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세 가지 입장, 하나의 선택

전통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대립의 입장이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세상은 악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망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요 17:15)와 맞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도피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다.

둘째, 타협의 입장이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흐리며 시대정신에 맞춰 복음을 재해석한다. 이는 교회를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롬 12:2)과 충돌한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내면화할 때 더 이상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셋째, 변혁의 입장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으로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나,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 예수님의 말씀(요 17:18)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게 소명이다.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혁시켜야 할 대상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한다.

세계관의 관점에서 던지는 네 가지 질문

이 글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특정 이념을 공격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답을 제시하려는 목적이기보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언어로 말하며, 어떻게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따라 생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2.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기준 위에서 있는가
3. 국가와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4. 교회는 어디에서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인간 존엄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사회 논쟁은 ‘권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벌어진다.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그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누가 그 경계를 정하는가? 겉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이다.

기독교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이것이 존엄의 유일한 근거다. 인간의 존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거나 국가의 허락을 받아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전제가 무너지면, 인간의 가치는 언제든 조건부로 전락한다. 생산성, 자율성,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 같은 잣대에 따라 생명과 존엄이 평가되게 된다. 이 점은 생명 윤리 논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은 흔히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물음은 이렇다.

“생명의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만일 자율성이나 의식 능력이 있느냐를 인

간 존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태아는 물론, 중증장애인이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 치매를 앓는 노인의 생명도 보호받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그 기준을 둘 때에는 모든 생명은 발달 단계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가치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생명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신비다. 이 기준이 사회에서 무력화되면 단지 한 법안을 잃는 것(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토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그 기준에 맞게 실천할 책임이 있다. 낙태를 반대한다면 미혼모를 품고, 입양 가정을 세우며, 장애인과 노인을 섬겨야 한다. 그들의 존엄이 생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방식이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도피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도 않는다. 대신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가치를 실천한다. 기준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전체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고와 체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반복해서 증언한다. 나치 독일, 스탈린의 소련, 북한 체제 이들 모두는 인간 존엄의 근거를 국가, 계급, 민족과 같은 세속적 기준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 극단적 자본주의 역시 인간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만 평가한다면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인간 존엄의 근거가 될 때,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만다.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이념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인간 존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 내는 데 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서는 이유는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지키는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기준을 붙들고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편에 서기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기준 위에서 있는가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다. 공동체의 기준과 전통은 개인을 억압하는 장치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확장될수록 사회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 자유와 권리가 책임과 분리되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인간을 참된 자유로 부른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고립된 개인의 자기주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독교적 자유는 관계와 책임 속에서 완성되는 자유다.故 하용조 목사님이 평신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라는 여러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을 가르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네 영역은 모두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접점이며,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질문과 마주한다. 나의 자유는 어디까지이고, 공동체를 향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기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양극단으로 흔들린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압도하며 책임은 해체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양심과 신앙이 억압된다. 이 두 극단은 모두 인간을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은 단지 윤리적 논쟁의 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의 과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동등한 존엄을 지니며, 그 누구도 정체성이나 지향을 이유로 인격적 모욕이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든 차이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원칙인가, 아니면 차이 자체의 소멸을 지향하는 개념인가.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엄을 지닌다는 고백과 남성과 여성 사이의 모든 구별이 단지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존엄의 평등은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열을 두지 않는 것이다. 차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식의 평등은 결국 인간을 획일적인 존재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차별’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양심과 신앙의 표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성경적 성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 ‘혐오’로 규정된다면 이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인격적 존중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일은 분명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 원칙을 포기하지 않되, 그 원칙을 말하는 방식은 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길은 인격적 존중과 양심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길이다. 그 길은 법적 논쟁에서 이기기 이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가

상의 우려가 아니다. 이미 여러 서구 국가에서 성경적 성 윤리를 가르치던 목회자가 혐오 발언으로 기소되거나, 양심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거부한 기독교인이 법정에 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주의 깊게 살피되,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대응해야 한다.

교회가 말해야 할 것은 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함께 붙드는 인간 이해다. 존엄의 평등을 지키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되 진리에 대한 확신까지 포기하지 않는 길. 교회는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갈등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갈 5:13) 제3의 길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이것이 개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며,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교회는 진영의 구호를 선택하기보다, 자유와 책임을 함께 붙드는 기준을 증언한다.

국가와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故 하용조 목사님은 1994년경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2000/10000’ 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평신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실현되려면 필수적인 전제가 있다.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한계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선교와 증거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와 법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성경 역시 국가권력의 역할을 인정한다(롬 13:1~7).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는 고백은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권력도 기존 아래에 있다는 신앙적 선언이다.

오늘날 ‘정교분리’라는 말은 종종 교회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라는 요구처럼 사용된다. 교회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인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교분리’라는 표현은 사실상 ‘국교분리’, 곧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배하거나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말에 가깝다. 그 핵심은 교회와 정치의 대화를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었다.

교회와 국가는 그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분리의 의미는 교회의 공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국교분리는 신앙을 정치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신앙을 통제하거나 규정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원칙이다. 중세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해 타락했을 때, 문제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교회가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반대로 나치 독일의 ‘제국교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통

제하려 할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 두 경우 모두 경계가 무너질 때 발생한 왜곡이었다.

따라서 ‘정교분리’라는 용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또는 정치에 대해 교회를 침묵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국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는 질서를 위해 존재하지만, 신앙과 양심을 규정하거나 예배의 내용을 판단할 권한은 전혀 없다. 교회는 국가를 존중하되, 국가권력이 스스로 절대화하려 할 때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할 것은 교회와 정치의 소통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종교 지배다.

오늘 우리는 법과 제도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규율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표현과 양심, 신앙까지 법의 판단 아래 두려워 할 때, 법은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면을 통제하는 장치가 된다. 법이 전부를 재단하는 순간, 인간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중보건을 이유로 종교시설의 예배가 행정 권력에 의해 일방적이고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사례를 생각해 보자. 방역은 국가의 정당한 책무이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방역을 거부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통제할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요청이다. 삼권분립의 긴장이 약화되고 행정부

“교회는 싸우는 단체가 아니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공동체도 아니다. 교회의 자리는 진영의 한쪽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가 입법과 사법의 충분한 견제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 권력은 선한 의도를 내세우더라도 위협해질 수 있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절대화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권력은 국가의 형태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때로는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언어를 통해 행사되기도 한다. 오늘날 일부 공론장에서는 교회 자체를 특정 이념의 상징으로 규정하거나, 특정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공적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내는 일이 벌어진다. SNS와 언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곧 정의인 것처럼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교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교회 안의 권위주의와 물질주의, 성적 윤리의 타락뿐 아니라, 정치 권력과의 거리 설정에 실패하여 신앙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혼용해 온 모습 역시 회개와 성찰의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의 갱신은 사회의 도덕 법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적 분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적 분별을 떠나 외부의 잣대에 자신을 내맡길 때 걸어오는 정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 스스로 본질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그 본질이 외부 권력에 의해 규정,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교회는 국가를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도, 국가에 무조건 저항하지도 않는다. 국가가 하나

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되, 그 한계를 넘어 신앙을 침해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로마서> 13장과 <사도행전> 5장은 모순되지 않는다. 교회는 국가 권위를 존중하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긴장을 지혜롭게 붙드는 것이 교회의 자리다.

교회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늘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가. 교회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 쟁점에 즉각 반응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회는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집단도, 시대의 이슈마다 입장을 갱신하는 기관도 아니다. 교회가 말해야 할 순간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해 온 근본 기준이 훼손될 때다. 그래서 교회의 말은 늘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때문에 결정적일 수 있다.

역사는 교회가 언제 말해야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정치적 오해를 감수했다. “카이사가 주”라는 고백과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양립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도피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은 채 세상 한복판에서 순교로 복음

을 증언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권력과 결탁한 교회를 비판하며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려 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교황과 황제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선택했다.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체제에 순응하지도 않았다. 교회를 성경으로 변혁시키는 길을 택했다.

20세기 독일의 고백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가 진리의 자리를 넘보던 시대에 그들은 1934년 바르멘 선언을 통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포했다. 마르틴 니묄러는 투옥되었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독일 사회 한가운데서 진리를 증언하는 길을 택했다. 한국 교회 역시 신사참배 앞에서 같은 선택을 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신앙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신앙은 해방 이후 한국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

교회는 언제나 말해왔고, 동시에 진영이 되기를 거부해 왔다. 교회가 지켜온 것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더 깊은 기준이었다. 그 기준이 무너질 때 인간은 수단이 되고, 자유는 관리의 대상이 되며, 공동체는 권력의 이름으로 재편된다. 이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자유와 책임은 그분 앞에서 균형을 이룬다. 국가와 권력 역시 그분의 질서 아래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교회가 이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다른 기준을 세울 것이다. 교회의 소명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밖에 서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존재한다. 교회는 파송 받은 선교 공동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매몰되지도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닌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내면화하지 않는다. 교회의 위치는 명확하다. 교회는 세상과 세상 사이, 대립과 타협 사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자리에 선다.

기준 위에 선 교회

교회는 싸우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공동체도 아니다.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진영의 한쪽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다. 나치 시대, 다수의 교회는 안전을 택했고 그 대가로 본질을 잃었다. 반면 소수의 고백교회는 시대의 압력 앞에서도 기준을 붙들었고, 그들의 선택은 오늘날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이정표로 남아 있다. 교회는 진영이 아니다. 교회는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기준을 붙든다는 것은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태도는 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진리를 말하기 전에 그 진리에 합당한 공동체로 빚어져야 한다. 변혁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 전에, 교회 자신을 향한 개혁이어야 한다. 교회가 이 기준을 붙들 때 도피하지도, 타협하지도 않는다. 동시에 스스로 절대화하지도 않는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말씀에 충실하되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를 읽되 말씀을 수정하지 않는 태도가 교회의 변혁이며,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기준을 핑계로 안락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기준 앞에서 스스로 개혁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교회는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기준은 시대의 혼란보다 크다. 그 기준 위에 선 교회는 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말씀에 의해 다시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다.故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이 강조해 온 그 고백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진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사진은 수원온누리교회 예배당 재건축 기공예배에서 첫 삽뜨기 기념행사를 하는 모습.

수원온누리교회 예배당 재건축 기공예배

목회자 및 리더십, 지역주민 등 290여 명 참석

수원온누리교회 예배당 재건축 기공예배를 지난 2월 27일(금) 오전 9시 수원온누리교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80)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김승훈 목사(수원온누리교회 담당), 유형 장로(건축위원장), 김형석 장로(수원온누리 대표장로) 등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수원온누리교회 성도 29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온누리교회 기공예배는 김승훈 목

사 인도,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유형 장로(건축위원장) 진행보고, 김형석 장로(수원온누리 대표장로) 감사인사, 첫 삽뜨기 기념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영덕동 대표와 지역사회 대표도 참석해 이번 예배당 재건축이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축과정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거룩한 팀워크’(느 3:1~13)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다양한 이들이 합

께 힘을 모아 새로워질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더욱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서 “수원온누리교회가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형석 장로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수원온누리교회는 한마음으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 양재는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02-3215-3220), 양재(010-7347-3473)

/ 홍하영 기자

서빙고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서빙고 큐티스쿨 17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정의’, ‘큐티의 순서와 방법(읽기, 묵상, 기록)’, ‘큐티의 순서와 방법(적용, 기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문의: 010-7131-1284

장로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4월 14일~10월 20일 매주 화 서빙고 순형홀

장로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전반기 4/14~5/26, 후반기 9/15~10/20)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장로(2021년 임직 장로까지)가 대상이다.

장로아카데미는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 상호 친교를 나누며 온누

리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장로 357명(해외 40명 포함)이 이수했다.

장로아카데미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3월 10일(화)까지 목회행정실 김경렬 간사(mtp01@nate.com)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원은 30명, 참가비 무료. 문의: 02-3215-3234

결혼비전스쿨 with4u 2기 참가자 모집

3월 14일부터 매주 토 오후 1시 대학로 이룸

결혼비전스쿨 with4u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싱글, 커플 청년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학로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회비는 10만 원. 결혼비전스쿨 with4u는 성

경에 기반한 결혼의 목적과 방향성, 음식과 재정 등 결혼생활 전반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행가래(행복한 가정, 내일의 축복)가 주관한다.

문의: 010-5059-4459



서빙고 OBC 불학기 참가자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OBC(Onnuri Bible Club) 불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5일부터 ‘시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 ‘고린도전서’를 주제로 8주 과정이 각각 개설된다(자세한 사항은 아이스쿨 참고). 참가신청은 3월

13일(금)까지 아이스쿨이나 현장등록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2월 24일 개강한 ‘빌립보서’ 과정은 4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참가자 모집은 3월 3일(화)까지다. 문의: 010-8480-9970

/ 박지혜 기자

온누리공동체 2026년 상반기 개강예배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3월 3일(화)	강촌	두란노홀	18:00
3월 3일(화)	이수	한동홀	18:00
3월 3일(화)	서빙고	시온홀	18:00
3월 5일(목)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3월 5일(목)	노원	한동홀	18:00
3월 5일(목)	마포	비전홀	18:00
3월 6일(금)	성동광진	한동홀	18:00
3월 6일(금)	용산	시온홀	18:00
3월 6일(금)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3월 6일(금)	가정사역	비전홀	18:00
3월 6일(금)	찬양사역	성가대실	18:00
3월 6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8:00
3월 7일(토)	김포	비전홀	16:00
3월 7일(토)	북누리	북누리센터	15:00
3월 7일(토)	일산파주	일산비전센터	18:00
3월 7일(토)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3월 8일(일)	특별한초대	순형홀	17:00
3월 10일(화)	성북	시온홀	18:00
3월 10일(화)	강서	두란노홀	18:00
3월 10일(화)	동작	비전홀	18:00
3월 11일(수)	이촌	두란노홀	18:00
3월 12일(목)	OCC	두란노홀	18:00
3월 12일(목)	양천	비전홀	18:00
3월 12일(목)	중종로	한동홀	18:00
3월 12일(목)	여의도	정곡빌딩 4층	18:00
3월 13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3월 13일(금)	서대문	한동홀	18:00
3월 13일(금)	신용산	비전홀	18:00
3월 13일(금)	관악금천	시온홀	18: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2월 28일(토)	온믿음	화평홀	18:00
3월 5일(목)	도곡	화평홀	19:00
3월 5일(목)	서초C	드림홀	19:00
3월 6일(금)	서초A	화평홀	19:00
3월 6일(금)	온소망	온유홀	19:00
3월 6일(금)	송파A	드림홀	19:30
3월 6일(금)	강남E	도곡기쁨홀	19:20
3월 7일(토)	송파B	화평홀	19:00
3월 7일(토)	과천의왕	CGV평촌	15:00
3월 7일(토)	경기A	안산M센터	11:00
3월 8일(일)	온사랑	도곡기쁨홀	13:00
3월 8일(일)	하모니	두란노홀	15:30
3월 14일(토)	양재A	기쁨홀	17:30

캠퍼스			
3월 6일(금)	부천 사랑	비전홀	20:00
3월 6일(금)	부천 화평	본당	20:00
3월 7일(토)	부천 믿음	본당	14:00
3월 7일(토)	부천 화락	자백 203호	11:00
3월 14일(토)	부천 소망	본당 비전홀	17:30
3월 5일(목)	수원 남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3월 6일(금)	수원 동누리	ICT밸리 C동 예배실	20:00
3월 7일(토)	수원 서누리	롯데시네마 동탄	11:00
3월 7일(토)	수원 북누리	롯데시네마 평교	10:30
3월 6일(금)	대전 동누리	누리홀	19:30
3월 6일(금)	대전 서누리	비전홀	19:30
3월 6일(금)	대전 남누리	본당	19:30
3월 6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 본당	19:30
3월 4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30
3월 8일(일)	평택 연합	본당	14:00
3월 6일(금)	인천 사랑	소망홀	20:00
3월 6일(금)	인천 충성	본당	20:00
3월 6일(금)	인천 화락	기쁨홀	20:00
3월 13일(금)	인천 화평	본당	20:00
3월 13일(금)	강동 연합	본당	20:00
3월 1일(일)	양지 연합	김사무영홀	14:00
3월 5일(목)	영종 동누리	백향목홀	19:30
3월 6일(금)	영종 서누리	백향목홀	19:30
3월 7일(토)	제주도 연합	온누리홀	18:00
3월 6일(금)	서산 연합	본당	19:00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 모집

3월 21일~5월 16일 교육, 4월 4일~6월 27일 양육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1일(토) 오전 9시 20분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차례 교육실습을 한다. 3월 22일(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영상 강의, 3월 29일(일) 오후 7시 50분, 4월 11일(토) 오전 9시 20분, 5월 16일(토) 오전 9시 20분 온라인(Zoom) 실습을 한다. 교육실습 이후 4월 4일(토)부터 6월 27일(토)까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12회)를 마쳐야 수료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생의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 중에서 성인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만 및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다만 양육자용과 자녀용 교재 2권 및 필독서(〈성장〉, 최은영 지음)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부모나 조부모, 차세대 교사가 양육자가 되어 초등학교생 자녀와 일대일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돕는 훈련 과정이다.

문의: 010-4277-4429



“한국 교회 연합 선교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 취임



지난 23일에 열린 한국해외선교회(GMF)이사장 이취임식.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해외선교회(GMF)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양승헌 목사(세대로교회 원로)가 이임하고 이재훈 위임목사가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찬 선교사(GMF 대표), 문대원 이사(대구동신교회), 정민영 이사(전 위클리프 국제부 대표), 양승헌 이사장, 이재훈 위임목사, GMF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해외선교회(GMF)는 한국 선교가 뜨겁게 시작되던 시기 선교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울타리”라면서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 연합 선교에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순수함을 지키며 더욱 융합하도록,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쓰임 받도록 더욱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GMF)는 한국 복음주의 지도자 김인수 박

사(전 고려대 교수), 옥한흠 목사(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영덕 박사(전 국무총리), 하용조 목사(전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진오 박사, 허남기 목사, 홍정길 목사, 이태웅 목사(창립 이사장) 등이 설립했다.

단일 교회나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공동체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민족과 지역에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6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

3월 7일 오후 3시 서빙고청소년센터

2026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가 3월 7일(토) 오후 3시 서빙고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 본부장), 이태열 장로(차세대 대표장로) 등 교역자와 리더십 370여 명이 참석한다. 차세대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리더십을 격려하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며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2026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각 부서 소개, 특별 강의, 온누리 퀴즈쇼,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역자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 박지혜 기자

온누리 호스피스스쿨 참가자 모집

3월 10일~5월 12일 매주 화 서빙고 성가대실

온누리 호스피스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구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호스피스스쿨에서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 이기훈 목사, 오은규 목사, 김도봉 목사(한국호스피스협회), 김기철 교수(서울성모병원), 김은혜 전문

간호사(안양샘병원), 최지는 의료사회복지사(안양메트로병원), 박양현 목사(안양샘병원), 이충원 애도상담사(중앙보훈병원), 이해원 사무총장(각당복지재단), 이안호 교수 등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8만 원.

문의: 010-3412-7966

/ 홍하영 기자

CGN, 성경번역선교회(GBT)와 업무협약 체결

네팔 현지 복음화 목표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과 성경번역선교회(GBT)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25일(수) CGN 본관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진국 대표(CGN), 김현 대표(CBT)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네팔 현지 복음화’가 목표다. 주요 내용은 CGN의 성경 영상 콘텐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삽화를 성경번역선교회(GBT)에 무료로 제공하고, 성경번역선교회는 이를 네팔어 및 네팔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해서 네팔어 버전 ‘공동체성경읽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CGN 대표 전진국 장로는 “성경번역선교회(GBT)와 네팔어 및 네팔 소수민족어 공동체성경읽기 제작 협력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는 CGN이 2020년부터 제작한 콘텐츠다. 하루 약 20분씩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하도록 돕는다. CGN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지에서 관련 삽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선교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관계(EHR) 스쿨 모집

토요일, 목요일 오전, 저녁반, 온라인(EHR) 개강

회복사역본부 산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단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토요일(오전 10시30분~12시30분) 3월 7일(토)부터 양재온누리교회 한동홀, 목요일 오전반(오전 10시~12시) 3월 12일(목)부터 도곡교육관 온유홀, 목요일 저녁반(오후 7시30분~9시30분) 4월 9일(목)부터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2단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는 1단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을 수료해야 수강할 수 있다. 3월 9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 스쿨은 9주 동안 이어진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며 수용 받는 훈련을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에서는 대화법을 통해 나, 하나님, 타인과 건강한 관계 맺기 훈련을 한다. 영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을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오프라인 3만 원, 온라인 1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010-3799-1050

사역장로회, 안산M센터에 후원금 전달

온누리교회 사역장로회가 지난 2월 16일(월) 안산M센터에서 진행된 이주민 설 집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석인 장로(사역장로회 회장), 백승웅 장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주민 설 집회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와 말씀, 교제 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사역장로회는 언어권별 예배 현장을 찾아 이주민 성도들을 격려했다. 김석인 장로(사역장로회 회장)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을 그리워할 이주민 성도들에게 사역장로회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준비했다”면서 “하나님이 이주민 성도들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 박지혜 기자

2월 세례자

■서빙고 강소원 920211 김승욱 900115 배준우 951108 이재운 060929	양재 김유나 861031 박우영 041103 박은영 740405 엄성현 950807 유상욱 681010 이종혁 710815 현지혜 610130	■하늘 이 슴 021116 이승유 040928 조정래 060222	■J4U 이유정 920210 채지훈 890322
유아 권율 220215 권영식 박백희 김사랑 230830 김태균 박옴 김예준 250206 김중연 이사랑 김태이 250116 김승욱 강소원 남하은 240327	유아 김리우 241225 김선천 박주연	<대학청년> ■여호수아 강나연 960712 김민재 890803 박건우 890120 이은환 930406 한상은 960109	■SNS 김민성 010326 김준상 931213 입교 김선우 250904 김현준 허주혜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관계(EHR) 수료 간증



/ 김종희 권사(양재B공동체)

40년 신앙의 결핍,
드디어 답을 찾다

신앙생활을 40년 했다. 주일예배와 새벽기도, 제자훈련과 각종 사역까지 내 삶의 궤적은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았지만, 문득문득 마주하는 나의 내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했다. ‘나의 영성은 정말 건강한가?’라는 소리 없는 질문이 늘 마음 한 구석을 맴돌았다.

사역 현장에서 우연히 접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강의는 잠자던 내 영혼을 깨우는 강렬한 진동이었다. 그날 이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EHR)과정을 이수하면서 비로소 나의 영적 여정의 사각지대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훈련하면서 마주한 가장 정직하고도 아픈 진실은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의 ‘정서적 불건강’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열정적인 성격으로 사역에 매진해 왔지만, 정작 내 감정과 인격은 복음 안에서 온전히 다듬어지지 못했다. 원가족에게 내려온 깊은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의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뜰을 돌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넓어짐을 느꼈다. 말씀을 묵상하는 관점이 새로워졌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내 삶의 새로운 반점대가 되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관계(EHR)은 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 자체였다. 건강한 정서와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억눌려 있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내 삶의 새로운 영적 규칙을 세워가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타인을 향한 ‘공감’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에도 파스한 이해와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삶에 새로운 영의 문을 열어 주시고, 멈춰 있던 내면의 성장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서빙고 이웃사랑팀 간증



/ 박윤순 집사(서빙고이웃사랑팀)

사랑은 삶으로 증명된다!

사회선교부 소속 이웃사랑팀 총무로 섬기지도 어느덧 일 년이 되어간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공동체 목사님이 우리 부부에게 사회선교를 함께 섬기면 좋겠다고 권하셨을 때 이미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순뜻 순종하지 못했다.

어느 여름, 공동체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다. 나는 운전 중이고,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 교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웃사랑팀에 함께하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건넸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운전석이 바늘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 생각했다. 게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부부들까지 동참해서 이웃사랑 사역을 권하셨다. 결국 나는 떠밀리듯 이웃사랑팀 총무라는 중책을 맡았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담이 앞섰다. 다락방 장으로 늘 열심을 다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가정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찢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힘들고 지칠법한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로 어

르신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머리로 이해하던 사랑이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다가왔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봉사자들의 모습이였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돕고, 지친 이에게는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보았다. 이웃사랑팀은 단순히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작은 교회 같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웃사랑팀이 감당하는 사회선교의 본질임을 알게 되었다.

총무로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 자리다. 이 사역을 통해 사랑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웃사랑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서울역희망공동체 사역 간증



/ 김신애 성도(이수공동체)

주 안에서의 사귄

나에게 서울역희망공동체 쪽방촌 봉사는 한 단어로 정리된다. 바로 ‘사귄’이다. 내가 섬기는 쪽방촌 봉사 대상자 최인숙님은 80세가 넘으셨다. 예수님의 재림을 또렷이 고백하실 만큼 오랜 믿음을 지닌 분이다. 옆집에 사는 황춘화님은 몇 해 전 아드님을 떠나보내셨다. 사실 나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믿음이 있음에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었다.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공동체 수련회가 열렸다. 정성을 다해 단정히 차려입고 나오신 대상자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최인숙님은 다른 봉사자들과 더불어 찬송하고 기도하며 옆집 황춘화님을 전도했고, 마침내 함께 교회에 출석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최인숙님 한 분이 아니라 황춘화님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 또 하나의 ‘사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그분들의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 낮은 곳에 더욱 간절하게 임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지만 꾸준한 섬김이 마음을 얻고, 그 꾸준함이 사귄을 완성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스며드는 사랑을 알게 하였고, 사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면서 변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변화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최근 최인숙님과 통화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황춘화님과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아드님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쪽방촌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처음 만났을 때 어둡고 슬픔이 깊었던 두 분의 얼굴에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다. 봉사 현장에서 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앞으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이웃과 꾸준히 동행하며 살고자 한다. 주 안에서의 사귄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 수료 간증



/ 장현희 집사(마포공동체, 온누리 호스피스 봉사자)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직장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래서였을까. ‘호스피스 봉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곤 했다.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에 등록하기 전에는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 팀장님은 밝음과 열정 그 자체였고, 조장님과 부조장님, 조원들 또한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었다. 강의는 매우 수준 높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었다. 봉사하지 않더라도 삶에 큰 도움이 될 내용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프신 분들께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강의였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이 환자에게 전하는 네 마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지닌 힘을 배우며 큰 도전을 받았다.

강의를 들은 다음 날 나는 노트를 펼쳐놓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내려갔다.

고맙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써보았다.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다. 남편과 두 딸에게 그 글을 읽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시간은 작은 치유의 순간이었다.

요양원 봉사하러 갔던 날도 잊을 수 없다.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으신다는 한 어르신께 식사를 도와드렸다. 그런데 그날은 한 그릇을 다 비우셨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 어르신께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밀려왔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어르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어두운 표정이 아닌 환하게 웃는 어르신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호스피스 봉사는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난 한 분 한 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임상범 장로
(신용산공동체)

전도학교 참여 이후 신앙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게 변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평안을 바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들의 영혼 상태를 떠올리며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된다. 산책하거나 공원을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5분 전도문’을 암송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다.

5분 전도문을 암송하는 시간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의 그림을 떠올리며 전도문을 되뇌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따뜻함과 잔잔한 기쁨이 스며들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새롭게 일어난다.

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한층 깊어졌다. 작은 누님, 큰 형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쉽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매일 같이 고민한다. 이런 열망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한다.

전도학교 참여 이후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는 자연스레 전도학교를 권한다는 점이다. 성령 충만함과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말씀 묵상과 예배, 성령수련회 등을 통해 채워진 은혜가 전도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전도학교 지원 동기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전에 매형을 위로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위로만 건넸던 적이 있다. 돌아오는 길에 남은 찜찜함은 결국 복음을 전할 용기도, 도구도 없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전도를 위한 좋은 자료를 찾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전도학교 모집하는데 가보실래요?”라고 권유하셨다. 그 순간 강한 울림과 함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어 기쁘게 신청했다.

전도학교에서는 카리스마와 따뜻함으로조를 이끄시는 이성미 조장님의 인도 아래, 목회자 세 분, 장로 두 분과 함께 깊은 교제와 배움을 누렸다. 처음에는 도저히 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5분 전도문이 3주 차쯤 되자 자연스럽게 입에 붙고 마음에 새겨졌다.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암송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새 복음의 핵심인 창조·타락·구속·회복의 메시지가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어느 주일에는 이천만광장에서 책자 <최고의 행복>을 들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며 큰 자신감을 얻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접촉점 찾기, 상황별 대처법, 다양한 실전 사례를 나누며 전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의 준비도 견고해졌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3)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친구들,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편의 전도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지난해 말 양수리에 사는 권사님을 만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던 중에 나이 이야기가 나왔다. 70세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였다. 70대를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보니 60세를 맞던 때도 하나님께 지금과 같은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60대를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며 보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먼저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봉사하겠다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망교도소와 일본 일대일제자 양육 양육자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있었다. 일본 일대일제자양육 봉사는 가족들의 동의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지만, 교도소 봉사는 쉽지 않았다. 하나님과 기도로 약속한 것을 물릴 수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가족을 설득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사실 나도 교도소란 낯선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에 나도, 가족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심이 있었던 때는 3월 초였고, 그때 <마태복음>을 묵상 중이었다. 3월 중순을 넘기면서 향유옥함을 깨뜨리는 본문 말씀이 내게로 왔다. 예수님이 옥함을 갠 여인을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 26:10b).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혔다. 남편과 이 말씀

을 나누다가 남편은 나의 교도소 봉사를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도소 봉사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좋은 일을 한 거라는 확신을 주셨다. 그렇게 시작한 교도소 봉사가 벌써 10년째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60대를 보내도록 은혜를 주셨다.

작년부터 하나님께 “7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묻고 있다. 하나님은 양수리 권사님의 묵상 나눔을 통해 무엇을 하기 전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장로나 권사가 되기까지, 그 나이가 되기까지 각자의 신앙 경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곧이 자신이 이룬 신앙 경험이라는 게 있을까?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신앙뿐일까? 삶 전체로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을 특별히 잘하거나 이뤄서 본이 되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모습을 힘써 보여주는 것이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길일 것이다.

“70대를 어떻게 살까요”라고 기도하던 나에게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은 뜻밖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귀한 나눔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70대에는 인생의 본문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가 명확해진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고하는 일상으로 인생 본문을 써나가기로 했다. 이것이 7학년을 맞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리라.

신앙에세이

미얀마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



노치형 목사
(중종로 공동체)

2025년 12월 21일 주일, 미얀마 땅 나웅체의 토브센터에서 나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선포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온 라아(악)에 결코 지지 말고, 창조의 근본이자 예수 십자가 사랑의 핵심인 토브(선)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을 무기 삼아 험박하고 회유하는 라아(악)를 이겨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는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에 가까운 땅이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소승불교의 영향력은 윤회 사상과 승녀에게 선을 행해 쌓는 공덕신앙서와 손

을잡고 미얀마 땅의 산과 골짜기, 평지를 지나 굽이치는 물줄기를 타고 인파족의 삶의 터전인 인레호수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 그 뿌리를 견고하고 광활하게 내리고 있다. ‘예수=그리스도’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미얀마 땅에 복음을 전해온 지 15년이 지났지만, 선교사님들에게 그곳은 여전히 ‘대꾸 없는 광야’처럼 서 있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깨끗한 통로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낮은 자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성껏 섬겨왔다. 하지만 선교사님들 앞에는 서늘하고 냉담한 배신의 징후와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태풍 같은 단호한 거절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전히 낮설고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으 선교사님과 박선희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셨다.

“보라, 내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사 43:19)

하나님은 이사야의 믿을 선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셨다(사 43:18~21). 어둡고 낮은 광야의 삶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 그 영광이 미얀마 땅 나웅체의 ‘토브센터’ 위에 임해서 빛나고 있다. 그 빛은 ‘토브 사역’의 ‘원동력’이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는 ‘원심력’이자,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구심력’이다. 그 빛에는 광야 생활을 빛나게 하는 선한 능력이 있다. 그 선포한 빛은 ‘오직 예수님’ 이시다.

영원에서 태초를 지나 종말을 거쳐 다시 영원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 때때로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 긴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 온 세상에 유일한 빛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예수님’ 이시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서빙고 02.793.9686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 배 11:00 102호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पाल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화평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 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 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4층 강의실1		남양주M센터 네पाल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 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 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पाल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 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뵘 11:00 지하 Dream Kids Room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पाल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인전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पाल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 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뵘 11:00 지하 Dream Kids Room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쭈파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뵘 11:00 지하 Dream Kids Room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뵘 11:00 지하 Dream Kids Room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10-5250-1233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뵘 11:00 지하 Dream Kids Room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간테이블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양 재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 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30(발달장 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6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부천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 4부(대학 청년) 16:00 / 5부 19: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 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 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 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 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 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 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 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 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 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 실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 터 301호 / 네पाल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 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 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아들홀(3층) / 유년 1부 9:00, 2부 11:30 드림홀(2층) / 초등 1부 9:00, 2부 11:3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 관 3F 믿음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평택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 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땅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땅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 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 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강동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 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 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간홀		영종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 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 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땅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땅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두드림 수요예배 10:30 본당 엣드림 금요예배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CGN

나침반



혼란스러운 세상 속, 당신의 영적 좌표는 어디에 있나요?
 신앙의 현주소를 묻고(Question), 나아가야 할 방향(Compass)를 찾는
 CGN의 성경적 세계관 오프라인 특강 <나침반Q>를 만나보세요!

*나침반Q는 CGN, 두란노, 온누리신문이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3월 나침반Q



<강사>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

강원대학교 지질학 석사
 미국창조과학연구소 과학교육학 석사
 그랜드래피즈 신학대학원 구약학 석사
 現 창조과학선교회 미주지부 회장
 現 한동대, 전주대 객원 교수

2026. 3. 5(목)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3층 비전홀

과학으로 입증하고
 성경으로 확신하는 노아의 방주

10:00 - 11:00

강의 1 : 노아의 홍수

11:00 - 11:10

Break Time

11:10 - 12:10

강의 2 : 노아의 방주

12:10 - 12:30

Q&A



<나침반Q 참가 특전>
 선착순 100명
 '노아 홍수 콘서트' 도서 증정

참가신청 QR



<참가비>
 30,000 원
 참가문의: 02-3275-9303